**서론(1분30초~2분)**

안녕하십니까 아이돌봄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 제작팀 워킹맘입니다.

저희 팀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공백 문제에 주목하였고,

이에 1)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운영현황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2) 돌봄교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지역을 배치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등돌봄교실 수를 이용하는 학생수는 최근 10년간 약 5배정도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돌봄정책 시행결과로 기존 저학년만 다니던 돌봄교실이 전학년으로, 오후돌봄 운영시간 역시 오후5시에서 2시간이 늘어난 오후 7시로 변경되고

교육부 사업추진 계획을 통해 학교와 마을간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참여학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위기로 이전보다 축소된 인원이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서 공간확보의 필요성 역시 중요해졌고

방역소독과 돌봄병행이 동시에 부담하게 되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지자체 예산 역시 부족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론(1분30초~2분)**

서비스 구현을 위한 데이터와 분석방법입니다.

저희 팀은 4단계의 데이터 분석 단계를 거쳐 예측모델링을 생성하였습니다.

우선, 저희의 분석모델은 머신러닝 지도학습 중 하나인 다중선형회귀 모델입니다.

크게 인구,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3가지 환경으로 나눠 각 환경 별 2가지 총 6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해 예측변수인 돌봄시설을 계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비만지수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서 과체중 또는 저체중인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해 독립변수로 채택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이 높을수록 ( ) 예상하여 독립변수로 채택하였습니다.

데이터탐색단계에서는 전처리를 통해 ( )

모델링단계에서는 ( 회귀식, 다중공선성 )

Stepwise와 부분집합회귀분석방법을 통해 변수를 선택하고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87%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2분)**

모델링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온종일 돌봄24'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24시간 실시간으로 돌봄시설 현황과 부족한 지역을 시각화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주요 목적이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현황 역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글스튜디오 플랫폼으로)프로토타입 제작을 통해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만든 사이트 보여줌---

좌측에는 시설에 대한 현황을 우측에는 지역별 필요한 돌봄시설수를 그리고 하단에는 학생수와 간편조회 서비스로 구성하여 돌봄 관련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최적화된 웹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온종일돌봄24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2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B2G모델로 정부 및 지자체에게 온종일돌봄24를 통해 돌봄서비스 보급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각 지역별 시행중인 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두번째는 B2C모델로 예비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혹은 주거지 변경을 원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게

돌봄시설 우선 공급지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차후 주거지 결정에 도움이 되게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온종일돌봄24의 수익모델은 단기간에 창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입을 하는 기관, 학부모, 학생의 데이터가 쌓이고 가명처리 과정을 거쳐 이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 서비스들을 추가로 재생산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